

투어 번호
LK9TB64BHJ

해안과 문화 (13일)

12일 · 11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체험 소개

이 13일간의 투어는 스리랑카의 문화 삼각지, 고지대 지역, 남부 해안을 하나의 개인 일정으로 연결하며, 전용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해 네고롐보에서 출발하여 고대 왕국 아누라다푸라와 폴론나루와, 암석 요새 시기리야, 산악 도시 캔디, 누와라 엘리야와 엘라 주변의 차 지역, 그리고 얄라, 아항가마, 갈레를 거쳐 콜롬보에서 마무리됩니다.

여행객들은 시기리야, 담불라 석굴 사원, 캔디의 성유 치아 사원과 같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지와 함께 판두와스누와라의 덜 방문한 유적지, 아부카나와 사세루와의 서 있는 부처상을 관광합니다. 야생동물 및 자연 관광지는 미네리야 국립공원과 얄라 국립공원의 사파리, 레카와의 거북이 부화장, 마두 강의 보트 여행, 그리고 남부 해안의 차 농장과 그물낚시꾼들을 포함하며, 이 2주간 역사, 풍경, 해안 생활이 섞여 있습니다.

이 투어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담 운전기사 가이드와 함께 진행되며, 공항 이동 및 지역 간 이동을 담당하므로 여행객들은 각 관광지와 숙박지에서 자신의 속도로 일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네곰보

공항에 도착하면 전용 기사 겸 가이드가 마중을 나와, 어항과 운하로 알려진 해변 마을 네곰보로 이동하여 비행 후 휴식을 취합니다.



네곰보

공항에서 가까운 해변 휴양 도시로, 카페와 레스토랑, 어촌 마을과 항구로 유명하며 도착 후 여유롭게 쉬기 좋은 곳입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Day 2 아누라다푸라

이날은 스리랑카 최초의 고대 수도를 탐험하며, 가는 길에 또 다른 옛 왕도에 들릅니다.

판두와스누와라 왕국

12세기에 짧게 수도 역할을 했던 고대 왕국으로, 파고다와 불상당, 회의장, 성채의 유적이 남아 있으며, 복원된 옛 불치사와 다양한 전설이 전해지는 궁전 터도 있습니다.

아누라다푸라 신성 도시

천 년 넘게 스리랑카의 수도였던 곳으로, 광대한 지역에 파고다와 사원 건물, 연못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주요 명소로는 한때 고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중 하나였던 제타와나라마, 스리 마하 보디, 그리고 아바야기리 수도원 유적이 있습니다.

Day 3 담불라 (3~4일차)

이틀 동안 문화삼각지대의 중심부를 둘러보며, 고대 종교 유적지, 암벽에 조각된 불상, 폴론나루와 유적 도시, 그리고 민네리야에서의 사파리를 경험합니다.



미힌탈레 바위산

스리랑카에 불교가 처음 전해진 곳으로, 데바남피야티사 왕과 마힌다 승려가 만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기슭의 수도원 유적, 마힌다가 머물렀던 동굴, 암바스탈라 다고바를 비롯한 유서 깊은 스투파들을 둘러봅니다.

Dennis Sylvester Hurd · CC0



아우카나 불상

하나의 돌로 조각된 12미터 높이의 입상으로, 뒷면의 가느다란 연결 부위만으로 지탱되고 있으며, 섬세하게 새겨진 가사 주름과 신체 표현이 특징입니다. 인근의 일부 붕괴된 구조물로 보아 과거 불상당 안에 모셔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Carlos Delgado · CC BY-SA 4.0

사세루와 불상

아우카나 불상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미완성 입상으로, 아우카나 불상과 닮은 모습이며 왜 완성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여러 전설이 전해집니다. 근처에는 동굴 수도원과 고대 불상당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담불라 석굴 사원

기원전 1세기에 조성된 담불라의 황금 사원으로, 부처의 생애를 그린 고대 벽화와 수백 개의 불상, 신상이 신왕의 동굴과 대왕의 동굴을 포함한 다섯 개의 주요 석굴에 걸쳐 모셔져 있습니다. 사원 입구 밖에는 거대한 황금 불상이 서 있습니다.

Lankapic · CC BY 2.5



고대 왕국 폴론나루와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번영했던 스리랑카의 두 번째 고대 수도입니다. 유적으로는 갈 비하라, 와타다게, 연꽃 목욕터, 랑카틸라카 사원, 그리고 파라크라마바후 왕의 석상이 있습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민네리야 국립공원

5월부터 10월 건기 동안 대규모 코끼리 무리가 모여드는 '코끼리 대이동'으로 유명한 사파리 공원으로, 그 외에도 다양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만날 수 있습니다.

Stuart Pinkney · CC BY 2.0

Day 5 캔디 (5~6일차)

캔디 주변에서 보내는 이틀 동안 시기리야 바위 요새, 향신료 농원, 전통 공연, 그리고 불치사를 비롯한 시내의 여러 사원들을 둘러봅니다.



시기리야 바위 요새

카시아파 왕이 지은 5세기 바위 요새로, 거대한 사자 발 모양의 입구를 지나 올라갑니다. 오르는 길에는 유명한 고대 벽화, 계단식 정원, 지금도 작동하는 저수조, 그리고 옛 궁전으로 이어지는 터널을 볼 수 있습니다.

Wrobell · CC BY-SA 3.0



마탈레 향신료 투어

스리랑카 향신료 재배의 중심지인 마탈레의 향신료 및 약초 농원을 가이드와 함께 둘러보며, 고수, 고추, 계피, 카다멈, 육두구 등과 그 용도를 알아보고 아유르베다 의학에 대해서도 소개받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캔디 전통 공연

불 춤꾼, 검 춤꾼, 그리고 북소리에 맞춰 춤추는 캔디안 댄서들이 등장하는 한 시간 분량의 스리랑카 전통 예술 공연입니다.

Arian Zwegers · CC BY 2.0

캔디 사원 투어

목조 조각이 아름다운 엠베케 사원, 그림과 조각이 돋보이는 가다라데니야 사원, 건축적으로 주목할 만한 랑카틸라카 사원, 그리고 복원된 벽화가 있는 데갈도루와 석굴 사원을 포함한 캔디 주변 사원 투어입니다.



불치사(불치 사원)

부처의 치아 사리를 모시고 보호하기 위해 16세기에 세워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그림이 그려진 통로, 조각이 새겨진 기둥, 황금 불상들이 있습니다.

A.Savin · FAL

Day 7 캔디 → 누와라엘리야

캔디를 떠나기 전 왕립 식물원을 방문한 뒤, 중앙 고지대를 지나 기차로 누와라엘리야까지 이동하며, 이어서 시내를 둘러볼 시간을 가집니다.



페라데니야 왕립 식물원

19세기 초에 조성된 식물원으로, 난초와 향신료, 약용 식물을 포함해 4000종이 넘는 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희귀 수목, 현수교, 생울타리 미로도 있습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경치 좋은 기차 여행

페라데니야에서 누와라엘리야까지 고지대 전원 지역을 지나는 기차 여행으로, 차밭과 마을, 안개 낀 산악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Chamal N · CC BY-SA 3.0



누와라엘리야

영국 식민지 시대의 오두막과 저택, 대저택들이 남아 있는 옛 영국풍 고지대 휴양 도시로, 오래된 붉은 벽돌 우체국, 빅토리아 여왕 공원, 그레고리 호수 등이 있습니다.

Abdul malik77 · CC BY-SA 4.0

Day 8 누와라엘리야 → 엘라 → 얄라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차 공장을 방문하고, 사파리에 앞서 엘라 주변의 명소들을 둘러볼 시간을 가집니다.

차 공장

실제로 운영 중인 차 공장과 농장을 방문해 실론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며, 19세기 제임스 테일러가 스리랑카에 상업적인 차 재배를 도입한 배경도 알아봅니다.



엘라 탐방

엘라의 차밭과 바위투성이 지형을 걸으며 리틀 아담스 피크에서 바라보는 전망, 나인 아치 브리지, 그리고 루프형 철로가 있는 데모다라 기차역을 둘러봅니다.

Dan arndt · CC BY-SA 4.0

Day 9 아한가마 (9~11일차)

남부 해안에서 보내는 사흘 동안 얄라 사파리, 바다거북 보호소 방문, 차 공장, 수상 어부, 그리고 갈레시를 둘러봅니다.



얄라 국립공원

스리랑카에서 두 번째로 큰 국립공원에서 즐기는 사파리로, 표범, 물소, 늘보곰, 코끼리 무리를 비롯해 다양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Ranmith Welikala · CC BY-SA 4.0

레카와 바다거북 보호소

스리랑카 해안에 둥지를 트는 멸종 위기의 바다거북 다섯 종에 초점을 맞춘 방문으로, 야간 거북 관찰과 보호소의 보존 활동을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한둔고다 차 공장

버진 화이트 티 공장으로도 알려진 이곳에서는 희귀한 버진 화이트 티를 손으로 따고 가공하는 과정을 볼 수 있으며, 이어서 차와 초콜릿 케이크를 즐기는 시식 시간이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수상 어부

코갈라 해안에서 전통 방식으로 낚시하는 수상 어부들을 지켜보며, 이 전통을 이어가는 어부들에게서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갈레

과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거점이었던 도시로, 잘 보존된 갈레 요새를 중심으로 해양 박물관, 갈레 국립 박물관, 등대, 그리고 네덜란드 시대 건물들이 늘어선 자갈길이 있습니다.

Rovin Shanila · CC BY-SA 4.0

Day 12 콜롬보

콜롬보로 이동하는 길에 마두강 보트 투어를 즐긴 뒤, 출국 전 콜롬보의 주요 명소를 둘러보는 시내 투어가 이어집니다.



마두강

맹그로브가 늘어선 마두강 생태계를 따라가는 보트 투어로, 일광욕하는 악어와 왕도마뱀, 계피를 채취하는 섬, 물고기 마사지 체험, 그리고 자연 서식지의 물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SUPindia · CC BY-SA 4.0



콜롬보 시내 투어

옛 등대, 옛 국회의사당, 갈레 페이스 호텔, 갈레 페이스 그린, 강가라마야 사원, 국립 박물관을 둘러보고, 독립 광장에서 쇼핑을 즐길 시간도 가지는 콜롬보 투어입니다.

Gihanud2001 · CC0

출발

조식 후 체크아웃하여 출국을 위해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포함 사항

포함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inclusive of all chauffeur accommodation.
- Service of an English-Speaking Chauffeur Guide throughout the tour.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미포함

- Hotel Accommodation.
- International / Domestic Airfare.
- Any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Entrance fees to the respective sites.